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정서 이해 학습활동 연구

-고려속요를 중심으로-

류수열*

<차례>

1. 논의의 목적과 방법
2. 정서 관련 학습활동의 양상
 - 1) 수용과 창작 단원에 수록된 경우
 - 2) 문학사 단원에 수록된 경우
 - 3) 갈래 단원에 수록된 경우
 - 4) 특질 단원에 수록된 경우
3. 정서 관련 학습활동의 특징과 위상
4. 마무리를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연구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려속요 작품을 중심으로 정서 이해 학습 활동의 양상을 분석하여 문학교육에서 정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단원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의 관계에 관하여 하나의 쟁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정시가 수록될 경우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은 시적 소재와 주제, 배경, 상황, 의지, 자세, 태도, 욕망, 분위기, 어조 등 거의 모든 요소와 연동되어 구성된다는 점. 그리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는 작품의 해석이나 감상을 위한 단서로 활용되곤 한다는 점이 다. 또한 특정한 정서를 지칭하는 용어는 활동 지시문에서는 은폐되는 경향

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적 언어의 함축성을 고려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은 단원 학습 목표와 무관하게 거의 모든 단원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서정시에서는 본질적이고 항존적인 요소로서,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임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는 국가 수준의 의도된 교육과정과 교실 수준의 전개된 교육과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내용 학습에 이어 목표 학습이 제시되는 구도를 가진다. 그런데 만일 정서가 내용 중에서도 가장 압축적인 실체라면, 이러한 구도는 사리에 어긋난다 하겠다. 단원 학습 목표가 운율에 있든, 이미지에 있든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좀 더 정치하게, 혹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작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표 학습이 선행되고 내용 학습이 이를 뒤따르는 교수-학습 활동의 구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고려속요, 정서, 교수-학습 활동, 교과서, 내용 학습, 목표 학습

1. 논의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는 서정 갈래의 교육에서 정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학습 활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진단하고, 정서가 지니는 문학교육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이 단원 학습 목표와 맺고 있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나아가 문학 교수-학습에서 정서를 비롯한 내용에 대한 이해 활동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단원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의 관계에 대한 쟁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통상적인 방식으로 문학의 구성 요소를 내용과 형식, 표현으로 구별한다면¹⁾, 정서는 내용의 한 하위 항목으로 귀속될 것이다. 서정 문학은 ‘회

*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

감(回感)'(슈타이거), '내면화'(카이저), '세계의 자아화'(조동일),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김준오) 등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주관화의 장르이다. 그렇다면 서정 문학에서 정서는 그 내용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부라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내용이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 의식에서 나온다는 교육과정상의 진술에 기댄다면²⁾,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 서정 문학의 주제 의식을 찾는 일과 다를 바 없다.

본고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정서를 파악하는 학습 활동이 학습 목표와는 무관하게 거의 모든 단원에 배치되는 현상이다. 이 점은 서정 문학에서 정서가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문학 감상에서 정서 파악이 지니는 의의를 암시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의 양상을 단원 학습 목표를 준거로 접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고려속요, 그 중에서 궁중 속악으로 활용되었던 노래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정서를 다루는 이상 서정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서사문학에서도 정서를 논할 수는 있다. 시에서 정서의 주체가 시적 화자이고, 서사문학을 이에 대응시킨다면 그 주체는 서술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서술자는 엄밀히 말해 정서의 주체라 하기 어렵다. 그는 서사적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전달할 뿐이다. 물론 판소리의 서술자처럼 인물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평을 가하거나 인물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동화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서사학적 원론을 기준으로 보면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사문학에서 정서의 주체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³⁾ 이렇게 되면 난점이 하나 생긴다. 서정문학의 화자와 대응되는

1) 이는 7차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다. 2011년에 고시된 교육과정에서는 '표현'은 제외하고 '내용'과 '형식'만으로 문학의 유기성을 설명하고 있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 교육인적자원부, 2001, 309면

3) 그러나 여기에서도 단서가 필요하다. 서사물에서 인물의 정서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정 대목에서 인물의 정서를 밝힐 수는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서사에서 인물의 정서는 변화를 전제로 규정할 수밖에

서술자를 정서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정 문학과 서사 문학의 정서 개념이 서로 다른 층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정 문학의 화자'는 서사 문학의 인물'로 대응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으로만 성립되는 등식이다. 이러한 난점 때문에 서사 문학은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 논의에서 서정 문학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⁴⁾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시가사에서 궁중 속악으로 연행된 고려속요가 비교적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역사적인 장르로 보기 때문이다. '상고 시가' 혹은 '상대 가요'로 함께 묶이는 <공무도하가>, <구지가>, <황조가>를 단일한 장르 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향기는 주지하듯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 대중이라고는 하지만, 그 성격은 노동요를 포함한 민요, 동요, 주술요, 추모 혹은 예찬의 노래 등으로 그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다. <안민가>처럼 유교적인 주제 의식을 교술적으로 읊은 노래도 있다. 물론 속요도 그 연원에 따라 민요, 민요를 개작한 궁중 무악 가요, 무가계 가요, 개인의 문식이 가미된 가요 등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 향가에 비하면 고려속요는 궁중 속악이라는 연행론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사랑과 이별이라는 서정시의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다는 공통점도 지닌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고등학교 심화 과목의 18종 『문학』 교과서⁵⁾에서 고려속요를 본문의 제재로 활용한 단원을

없는 것이다.

- 4) 서사물을 대상으로 정서 문제를 다룬 다음 논문들은 모두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유경, 「<사씨남정기>의 정서 읽기 교육 연구」; 황혜진, 「<구운몽>의 정서 형성 방식에 대한 교육적 고찰」; 김용기, 「<운달전>의 인물 서사와 정서에 대한 탐색」; 신재홍, 「<유충렬전>의 감성과 가족주의」(이상 4편은 『고전문학과 교육』, 2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에 수록); 서유경, 「<속향전>의 정서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정충권,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분노와 설움」, 『고전문학과 교육』, 23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 5) 2009년에 고시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새로 편찬되어 2012년부터 현장에 보급되었다. 그러나 수록 작품의 레퍼토리나 학습 활동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인다. 탐색 결과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새 교과서에 고려속요가

두루 살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단원에서 정서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일단 취합하고, 이를 단원의 성격을 기준으로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시에서 정서가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시적 요소들과 어떤 연관망을 맺고 있는가를 밝힐 것이다. 단원의 성격은 교육과정상의 내용 체계에 따라 문학의 수용과 창작 단원, 문학사 단원, 갈래 단원, 한국문학 특질 단원으로 구별하기로 하겠다. 단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닌 단원은 나열된 순서에 따라 앞선 단원에 포함시켜 다루기로 한다. 그 밖의 다른 단원에 수록된 경우 그 성격의 친소를 판단하여 앞의 네 단원 중 하나에 포함시켜 다루기로 한다.⁶⁾

2.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의 양상

이제 고려속요에 속하는 개별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는 단원에서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전제로 삼아둘 것은 정서의 개념적 범위이다. 정서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학문적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가장 넓게 일반화할 수 있는 이치는 그것이 감정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문학에서 다루는 정서의

수용된 양상은 조하연, 『문학교육의 고려 속요 수용 양상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138, 한국어교육학회, 2012 참조.

6) 참고로 7차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영역	내용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나) 문학의 기능, (다) 문학의 갈래, (라) 문학의 가치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나) 문학의 수용,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 문학의 창작
(3) 문학과 문화	(가) 문학 문화의 특성,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라) 문학의 인접 영역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가) 문학의 가치 인식, (나)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다) 문학에 대한 태도

전모를 밝힌 한 연구⁷⁾에서는 정서를 대체로 '감정의 영역에 속하되 질서화한, 그리고 유기적인 모습을 띤 감정'(15면), '모순되는 충동의 갈등을 조화하는 과정 및 작용'(19면), '사고의 관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정의 질서화'(27면) 등으로 규정한다. 감정이 유기적으로 질서화된 상태를 정서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교육에서 정서의 문제를 다룬 다른 연구⁸⁾에서도 희로애락으로 대표되는 감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으며, 고문헌에 나타난 '정서'의 용례를 꼼꼼하게 분석한 연구⁹⁾에서는, 정서가 수동적 감수성, 애상적 분위기, 인간애 혹은 우애를 속성으로 삼고 있으며, 주변 사물의 분위기나 타자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감수하는 소통 능력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학습 활동이 정서와 관련되는지 여부는 감정이라고 하는 좀 더 범박한 범위의 개념을 준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서정시가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마음은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인 귀결이기도 하다. 실제로 학습 활동에서는 정서라는 개념 대신 '심리, 심정, 심경, 감정, 느낌'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항목이 자주 산견된다. 정서가 일상적으로도 이러한 용어들과 내포를 부분적으로 공유한 채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극히 자연스럽기도 하다. 또한 시적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학습 활동도 함께 포괄하기로 한다. 어떤 사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자세라는 사전의 풀이를 보더라도, 태도는 정서의 외현으로 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

또 하나 덧붙여 둘 것은,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한 이해는 문학교육의 내용 범주를 기준으로 '경험'으로 귀속시킨다는 점이다. 문학교육의 내용 범주를 지식, 경험, 수행, 태도로 구획하고,¹⁰⁾ 문학을 가치 있는 경험을 언

7) 김대형, 『정서의 본질과 구조』,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86.
 8) 김성룡, 『정서와 문학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2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9) 고정희, 『정서 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 고문헌에 나타난 '정서' 개념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그러나 오늘날에 쓰이는 정서라는 단어가 애초에 영어 'emotion'의 역어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고문헌의 용례를 통한 규정은 제한적으로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어로 표현한 예술로 정의하는 관례를 따른다면, 시적 화자의 정서는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문학의 내용 조건을 대체할 수 있는 실체이다. ‘가치 있는 경험’이 갈래를 초월한 층위에서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항목이라면, 정서는 서정시적 특수성을 반영한 항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점을 전제로 수록 단원의 성격별로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문학의 수용과 창작 단원에 수록된 경우

문학의 수용과 창작 단원에 수록된 고려속요는 <가시리>(3종)이다. 각각 ‘시의 화자와 목소리’ 단원(천재), ‘시의 형식과 표현’ 단원(금성), 그리고 ‘고려시대의 문학’ 단원(디딤돌)에 배치되어 있다. 이 중 ‘고려시대의 문학’ 단원에 배치된 것은 수용과 창작 단원이 문학사 단원과 통합적으로 구성한 결과이다.

작품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정서 관련 학습 활동
가시리	천재	시의 수용과 창작/ 시의 화자와 목소리	# 이 시는 의미 전개상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각 단계에서 입에 대한 화자의 심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 자신이 만약 이 시의 화자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고 가정하고, 자신의 심정을 담아 다음의 편지를 완성해 보자.
	금성	서정 문학의 수용과 창작/ 시의 형식과 표현	# 다음 만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자유롭게 상상하여 3개씩 써 보고, 「가시리」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보자.
	디딤돌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 고려 시대의 문학	# 버림받은 사람의 절망이 가장 강렬하게 표출된 부분을 지적해 보자. [탐구 정한의 표현 방식 : ‘한(恨)’에 대한 설명] # 이 노래가 이별의 ‘정한’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보자. # 다음 두 작품(정과정, 서경별곡)의 작중 화자와 비교

10)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출판부, 2008, 제4장 참조.

			하여 이 작품의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를 설명해 보자. # 이 노래의 화자가 임과 이별한 뒤, 기다림에 지쳐 입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글을 친지신명에게 올려 보기로 하자. 다음과 같은 글을 쓰다가 설움에 겨워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붓을 던지고 말았다고 하자. 화자의 심정에 동조하여 이어 써 보자.
--	--	--	--

‘시의 화자와 목소리’ 단원에 <가시리>를 배치한 천재 교과서에서는 ‘화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활동과 화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쓰는 활동이 정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시적 화자의 존재는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게 마련인바, 시적 화자의 목소리란 필연적으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단원의 정체성을 매우 잘 실현하고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시의 형식과 표현’ 단원에 <가시리>가 배치된 금성 교과서의 경우, 학습 활동을 ‘내용 학습’, ‘목표 학습’, ‘창작 학습’으로 구분한 뒤, 시적 화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춘 상기 학습 활동을 ‘내용 학습’에 배치하였다. 시적 화자의 태도가 형식이나 표현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형식과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시적 화자의 태도가 결국 시적 표현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표현 관련 활동으로 수렴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용과 창작 단원을 문학사 단원과 통합적으로 구성한 디딤돌 교과서에서도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절망’, ‘정한’, ‘설움’ 등의 정서 관련 어휘가 노출되어 있고, ‘이별의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라는 구절로서 정서의 외현을 명시하고 있다. 아마도 문학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이어지는 ‘이별의 정한’이라는 정서를 적극적으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용의 원리를 일차적 지표로, 문학사적 맥락을 이차적 지표로 활용한 것이다.

교육과정상 ‘문학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내용에 맞추어 <가시리>를 수록한 단원으로부터 정서 학습은 다음과 같은 위상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학의 수용을 크게 이해와 감상으로 구별하는 일반적인 논법에 따르면, 이해는 작품에서 형상화한 인간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일에 해당되고, 감상은 그것을 음미하고 즐거움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해당된다.¹¹⁾ 문학교육의 내용 범주를 지식, 경험, 수행, 태도로 구획하는 방법을 따른다면, 이해는 경험 범주에 감상은 태도 범주에 대응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문학을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면, 서정시에서 그 경험은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그 인간의 마음이 정서의 범박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문학의 수용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초점화되는 것은 결국 정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시적 화자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든, 시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든 독자로서 시를 만나는 최종적인 지점은 시적 화자의 정서인 셈이다. 특히 시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단원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가장 중핵적인 위상을 지니는 개념이라 하겠다.

문학의 창작 활동을 겨냥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과정에서는 창작을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예술 창작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 따라서 화자의 입장에서 편지를 써 보는 활동(천재)이나 떠난 천지신명에게 호소하는 글을 써 보는 활동(디딤돌)도 모두 창작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다른 장르의 글을 써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두 가지 항목에서 공히 ‘자신/화자의 심정’이라는 정서 관련 용어가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는 절차가 필요

11) 감상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 다음 글에서 감상을 ‘감식[鑑]’과 ‘자기화[賞]’의 두 차원으로 살피고 있는 바, 감상은 이해와 달리 독자의 주관적인 평가와 자기화에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하연, 「감상(鑑賞)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小考)」, 『문학교육학』 1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12) 이는 7차 교육과정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방향이다.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 해설』, 1997, 303면 참조.

하다. 만일 이 활동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서의 문학을 창작하는 활동이라면 본문으로 수록된 작품의 구심력이 차라리 불필요하겠지만,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시가 아닌 다른 장르의 글을 써 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요청되는 불가피한 절차이다. 이는 문학의 수용에서만 아니라 문학의 창작 관련 학습 활동에서도 화자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학습 활동의 한 단계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2) 문학사 단원에 수록된 경우

문학사 단원에 수록된 고려속요는 <가시리>(문원각, 포넛, 청문각, 민중서림, 블랙박스, 교학사(구)의 6종), <서경별곡>(지학사(권), 지학사(권), 민중서림의 3종), <청산별곡>(청문각, 문원각, 형설의 3종), <동동>(금성, 교학사(김), 지학사(권)의 3종), <만전춘별사>(태성) <정석가>(천재)이다. 전체적으로 6편의 작품이 연 17종에 실려 있어, 여타 단원에 비해 고려속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다. 이는 여타 단원이 현대 문학 작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문학사 단원은 그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문학사 단원인 만큼, 중 단원을 기준으로 ‘중세 후기’나 ‘고려시대’ 문학에 배치되어 있어 종별 편차는 거의 없다. 문학사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질론이나 전통과 통합되어 구성된 경우가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수록 양상을 <부록>으로 넘기고, 필요한 부분만을 언급하면서 논의하겠다. 우선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의 양상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시리>는 시적 자아의 심경 변화(문원각), 시적 화자의 심리적 갈등(포넛, 민중서림, 블랙박스, 교학사(구)), <진달래꽃>에 드러난 정서와의 공통점(청문각)을 탐구하는 학습 활동을 동반하고 있다.

<서경별곡>에는 ‘순종, 인고와 같은 전통적인 여성들의 이미지와는 다른 현실적 생활 감정’(지학사(박)), <진달래꽃>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

도와의 비교(지학사(권), 화풍이를 하고 있는 대상과 하소연하는 태도(민중서림)를 파악하는 학습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청산별곡>에 수반된 학습 활동에는 ‘감정이 이입된 소재’를 찾아보거나(청문각), 각 장별로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활동(청문각/문원각)이 동반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로는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바탕으로 뛰어난 문학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이유를 탐구하는 활동(형설)을 들 수 있다.

<정석가>의 경우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심리’나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천재)라는 정서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학습 활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만전춘별사>는 제2연에 국한하여 ‘봄밤에 아름답게 핀 복숭아꽃’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심정을 파악해 보는 활동(태성)이 수반되어 있다.

문학사 단원에서는 다른 내용 범주보다 지식 범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 중에서도 개체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지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역사적 지식은 역사적 삶과 문학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활동은 피해갈 수 없는 단계로서 설정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해설에서도 ‘한국 문학의 대표적 작품 읽고 수용하기’를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⁴⁾

(3) 갈래 단원에 수록된 경우

갈래 단원에 수록된 고려속요는 <가시리>(지학사(권) 1종), <정석

13) 김대행, 앞의 책, 78-88면.

14) 문학사 단원 구성의 근거가 되는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의 한 항목인 ‘②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사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해설에서 나온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997 고시), 교육인적자원부, 2001, 314쪽.

가>(민중서림 1종)에 불과하다. 이는 장르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할 때, 현대문학 작품을 동원하는 대체적인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작품	출판사	대단원/중단원	정서 관련 학습 활동
가시리	지학사(권)	문학의 본질/문학의 갈래	○ ‘가시리’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보자. # 시적 화자는 현재 어떤 처지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말해보자. 또 그런 태도를 보이는 내적 동기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도움말 : 이 작품의 어조를 통해 시적 화자의 태도를 추측해 본다.]
정석가	민중서림	문학의 갈래와 문학 활동/노래하기로서의 문학	# (가)에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살펴보자. 이러한 표현 방법은 어떤 효과를 주는가?

<가시리>의 경우, ‘내용과 형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시적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는 내용과 형식 중에서 내용 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간주된다. <정석가>가 수록된 교과서에서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학습 활동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의 효과를 판단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지의 실체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정서 관련 학습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4) 특질 단원에 수록된 경우

특질 단원에 수록된 고려속요로는 <가시리>(대한교과서, 태성, 두산의 3종)가 유일하다.

작품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정서 관련 학습 활동
가 시 리	대한	한국문학과 세계 문학/ 한국 문학의 특징	# 다음의 표현에 담긴 서정적 화자의 내면 심리를 추리해 보자. (1) 잡스와 두어리마나는 선후면 아니 올세라 (2) 설은 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 다음에 제시된 현대 대중가요의 가사를 읽고, 이별을 대하는 현대 여성의 태도와 '가시리'의 서정적 화자의 태도를 비교해 보자.
		한국 문학의 특징/ 한국문학의 특성	# <가시리>는 수미상관의 네 연으로 된 시이다. 첫째 연(기)은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둘째 연(승)은 떠나는 입에 대한 추복을 노래하고, 셋째 연(전)은 원망을 넘어선 고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면, 넷째 연(결)에서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 <가시리>와 <진달래 꽃>에 나타난 이별의 정한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토론해 보자.
	두산	문학의 문화적 특징/ 한국 문학의 문화적 맥락	#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어를 통하여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다음 작품에 나타난 정서가 한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

<가시리>가 다른 고려속요 작품과 달리 독보적으로 3종의 교과서에서 특질 단원에 수록될 수 있었던 근거는, 아마도 1950년 조운제가 이 작품을 ‘은근’의 한 예시로 제시한 한국문학 특질론¹⁵⁾이나, ‘素朴味와 含蓄美, 그 切切한 哀怨, 그 綿綿한 情恨’이라는 양주동의 평설¹⁶⁾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의 두 구절을 제시하고 화자의 내면 심리를 추리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대한교과서나, 연별로 정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별의 정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태성, ‘한국적’ 정서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 두산의 교과서가 모두 상기 두 편의 평가에 그 연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시리>가 문제적인 것은 이별을 대하는 태도이다. 여기에서 그 태

15) “그리운 님을 보내는 애 끊는 情은 測量할수 없고 그 哀怨 呼訴 戀戀한 情은 至極 하였지마는 그 情은 實로 은근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조운제, 『국문학개설』, 탐구당, 1984, 476면에서 인용함.

16) 양주동, 『麗謠箋注』(중보판), 을유문화사, 1985, 424면.

도는 정서의 동의어에 가깝다. 그래서 현대 여성의 태도와 비교함으로써 그 정서의 전통성을 탐구하도록 할 수도 있고, 이별의 정한으로 압축되는 정서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그 정서의 한국적 성격을 논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¹⁷⁾

3.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의 특징과 위상

1)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의 특징

이제 앞에서 살핀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의 양상을 바탕으로 그 특징을 분석해 볼 차례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보기로 하겠다. 하나는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의 일반적인 양상으로부터 그 특징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학습 활동이 전체하거나 함축하고 있는 정서의 구체적인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다.

먼저 정서 관련 학습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정서와 그 인접 요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정서는 확실히 문학의 다양한 요소와 거의 전방위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념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실제로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용에 해당되는 요소에는 작품의 질료라 할 수 있는 소재나 중심 제재, 시적 정황을 이루는 배경, 상황, 의지, 지향, 입장, 태도, 욕망, 갈등 등이 있다. 표현 관련 요소로는 분위기와 어조, 그리고 표현 방식을 꼽을 수 있다. 형식과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다는 점도 확

17) 교학사(김대형)의 교과서에서는 이 작품을 ‘주체적인 문학 활동’ 단원에 수록하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시하였다. 단원의 성격은 다르지만, 이 또한 정서에 초점을 맞춘 특질론에 근거한 것이다.
“가시리에 대한 그 동안의 평가 중 하나는 ‘이별에 대한 한국 여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인 수동적 자세가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비평적인 글을 써 보자. 글을 완성한 후에 서로 돌려 보면서 평가해보자.”

인할 수 있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시적 화자의 정서가 독자의 해석 및 감상 활동의 단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감 여부 혹은 독자의 심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학습 활동도 결국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시인 혹은 시적 화자와 독자 간 소통의 고리로 삼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서는 실상 내용 및 표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시적 요소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버리[綱]라 할 만하다.

다음으로 학습 활동 지시문에서는 구체적인 화자의 정서를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용어가 매우 희박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시리>와 관련하여 ‘이별의 정한’, ‘절망’, ‘설움’이, <서경별곡>과 관련하여 ‘순종’과 ‘인고’, ‘화풀이’, ‘그리움’, ‘한’이 제시되었을 뿐이다.¹⁸⁾ 그마저도 이런 용어들을 노출시킨 것은 비판적 사고의 유도 등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략의 소산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서정시에 쓰이는 시어의 함축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리해 볼 수 있다. 시어의 가장 일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함축성은 어떤 정서를 지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과 연관된다. 노골적으로 정서를 명시하는 시어가 동원되는 순간 시적 긴장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교술로 흐르기 십상이다. 극단적으로 시적 진술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거짓된 진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활동을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서정시의 본질을 존중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어가 함축적이라는 사실과 이를 학습 활동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겨냥한다면, 앞의 예에서처럼 교재 편찬자가 파악한 화자의 정서를 학습 활동 항목에

18) 김대행 외,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86에서는 정서를 적극적 정서와 소극적 정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애(愛), 숭경(崇敬), 칭찬, 환희, 동경, 희망 등은 전자에, 중(憎), 분노, 공포, 비애, 우수, 낙백(落魄), 절망 등은 후자에 귀속된다.

노출시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서를 지시하는 구체적 인 용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교수-학습의 효율성과 긴장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요소를 바탕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학습자가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으로 보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한다. 목표 지점에서 획득해야 할 정보를 미리 노출하는 것은 효율성을 겨냥했다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능동적 사고 활동을 동반해야 한다는 교수-학습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는 아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서정 시에서 정서가 항상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수준에서 제시된다면, 정서를 파악하는 모든 학습 활동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요청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제 개별 학습 활동이 전제하거나 함축하고 있는 정서의 특징을 추출해 보기로 한다.

먼저 화자의 정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수용자이자 독자인 학생 자신의 비판적 사고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이 주목된다.¹⁹⁾ 이는 시의 의미를 시인의 의도(intentional meaning)와 작품의 실제적 의미(actual meanig), 그리고 독자 자신이 발견해내는 작품의 의의(significance)로 구분할 때,²⁰⁾ 세 번째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이는 구성주의적 독서관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다. 의미 구성의 주체는 공동체와 사회로서 일종의 해석공동체를 이룬다고 보는 것²¹⁾도 구성주의지만, 학생들이 여기에 저항하면서 독창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새우고 자신의 형식을 만들도록 격려하는 것²²⁾도 구성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 가령 다음과 같은 항목이다. “<가시리>와 <진달래 꽃>에 나타난 이별의 정한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토론해 보자.”(태성)와 각주 17)에 인용된 항목.

20) 김준오(1982), 『시론』(제3판), 삼지원, 104면.

21) N. N. Spivey, 신현재 외 역(2004), 『구성주의와 읽기·쓰기』, 박이정, 162-164면. 여기에 특정한 개별 작품의 가치에 관해 비평공동체가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그 작품에 대한 평가의 다양성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가 소개되어 있다.

22) 위의 책, 376-377면.

이러한 활동은 서정시 작품이 품고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유일무이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는 독자의 주관적·주체적 평가에 의해 얼마든지 달리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데 어떤 변인을 고려하는 학습 활동도 주목된다. 그 변인 중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성적 범주이다. 즉 시적 화자를 남성/여성인 경우로 나누어 접근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²³⁾ 이처럼 시적 화자의 성별 판단을 토대로 정서를 파악하는 활동은, 정서가 남성성/여성성의 판정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시적 화자의 태도를 단서로 삼아서 정서를 파악할 경우에는 여기에 문화적 맥락이 개입될 수 있음도 기록해 둘 만하다. 또 하나의 변인으로 제시된 것은 시대적 특수성과 보편성의 범주이다. 시적 화자의 정서 파악이나 공감 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단서를 시대적 특수성에서 찾을 것인지, 인간 삶의 보편적 요소에서 찾을 것인지를 탐구하도록 하는 활동²⁴⁾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긴장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 수용이라는 일반론적 원칙이 변주된 학습 활동이다. 정서는 항상 개별적이지만 시를 수용하는 것은 그 정서를 인간 보편의 정서로 전이시키거나 확산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정서와 관련된 개별 학습 활동 중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한 항목은 정

23) #이 시(<정석가>-인용자)는 입과의 이별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가 남성일 경우와 여성일 경우로 나누어 작품의 상황을 상상해 보고, 그 정서적 효과에 대해서도 말해 보자.(천재)
#<“가시리”의 시적 화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사고를 하였다. 각자 따라 한 후에 얻은 결론을 발표해 보자.(교학사(김))

(1)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별 상황에서 취하는 태도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았다. (2) 이별 상황에서 남녀의 태도에 차이가 있을지 추리해 보았다. (3) <가시리>의 작중 화자를 여성과 남성으로 가정하고, 각각 그 단서를 작품 속에서 찾아보았다.(4) 어떤 경우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해 보았다.

24) #이 노래(<동동>-인용자)를 고려하는 시대 상황에 연결시켜 수용하는 것과 인간 정서의 보편성에 연결시켜 수용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의견을 나누어 보자.(교학사(김))

서가 서로 다른 화자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구성해 보도록 한 경우이다.²⁵⁾ 이는 실제적인 상호텍스트성이 아니라 교과서 편찬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형성된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이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작품 속에 고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수렴적인 사고를 요청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이 학습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그 정서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발산적인 사고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라 할 만하다.

2)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의 위상

앞에서 살핀 대로,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은 단원의 성격과 학습 목표를 떠나 거의 모든 단원에 포진하고 있다. 이제 이를 단서로 삼아서 단원의 성격과 학습 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의 위상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단원의 성격은 단원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규정된다. 단원 학습 목표는 특정 작품을 배치하는 근거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학습 활동 구성의 준거 역할을 한다. 모든 학습 활동은 원칙적으로 목표 지향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속요 단원을 대상으로 학습 활동을 취합해 본 결과, 정서를 파악하는 학습 활동은 수용과 창작 단원, 문학사 단원, 갈래 단원, 특질 단원에 두루 포진하고 있었다. 또한 정서에 대한 이해는 원론적으로 내용 관련 학습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표현 관련 단원에서도 제시되어 있었다.

정서는 기본적으로 문학의 내용 요소로서, 형식과는 거리가 멀고 표현과는 밀접하다. 표현이 정보를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학적 표현은 정서를 담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유일한 기표라 할 만

25) #보기(<가시리>-인용자)의 화자가 <서경별곡>의 화자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보고 두 화자의 대화를 만들어 보자.(지학사(박))

하다. 따라서 표현 요소는 형식에 비하면 정서와의 연관성이 훨씬 더 높다. 설명문이나 신문 기사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문학 고유의 표현을 가리켜 문학적 표현이라 한다면, 문학적 표현은 결국 형상화에 기여하는 모든 표현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성립된다. 비유를 비롯한 문학적 표현을 통하지 않고서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단원의 성격이나 목표와 무관하게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도록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정서가 항존적이고 본질적인 시의 요소이자, 시의 교수-학습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말해준다. 앞에서 살핀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면 문학의 형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단원에서도 정서를 파악하는 활동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만큼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의 위상이 중차대함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의 위상이 아무리 중차대하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교과서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적인 교수-학습의 현장인 교실에서는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이 필연적인 단계로서 이루어진다 해서, 이것이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을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활동이 교실에서는 수행될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이 지니는 위상이 교재론 층위와 교수-학습론 층위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이 단원의 성격과 무관하게 곳곳에 포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정서의 교수-학습론적 위상에 대한 교육공학적 처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달리 말하면, 단원 학습 목표와 무관한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이 동반되는 것을 오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다. 형식이나 표현 관련 단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서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수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표현은 정서를 효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전략의 소산이므로, 정서는 문학적 표현을 통해 드러

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문학적 표현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단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서에 대한 이해로 귀결되지 않으면 학습 목표의 성취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원에서 정서 파악 학습 활동을 포함시킨 것은 실제 수업의 흐름과 학습 목표 성취의 완성도를 고려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교재에서 정서 관련 학습 활동을 단원 학습 목표와 관계없이 다룬 것은 국가 수준의 '의도된 교육과정'과 교실 수준의 '전개된 교육과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마무리를 대신하여

이제 앞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단원 구성에서 학습 활동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관행에 대한 쟁점을 한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삼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부터 명시화된 일반적인 학습 활동의 틀은 '내용 학습'과 '목표 학습'이었다. 제시된 제재를 읽은 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단원의 정체성을 살린 목표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도이다. 가령 시의 운율을 다루는 단원에서도, 시의 이미지를 다루는 단원에서도, 내용 학습 단계에서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학습 활동을 배치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목표 학습 단계에서는 운율이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학습 활동이 이어지는 식이다. 이런 구도는 이제 검인정 시대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다. 문학 단원뿐만 아니라 읽기 혹은 독서 단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보편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운율이나 이미지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구도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으로만 타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운율이든 이미지가든, 그것은 결국 시

적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령 시의 이미지 학습을 목표로 하는 단원에 시가 배치되어 있을 때, 내용 학습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고, 목표 학습 단계에서 이미지를 탐구하는 것으로 완료된다면, 이는 매우 불충분한 교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그 교재를 시나리오 삼아 진행되는 수업 또한 불충분한 교수-학습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완성도를 지니기 위해서는 다시 시적 화자의 정서로 귀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지를 파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지점은 결국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일 것이기 때문이다.²⁶⁾

그렇다면 오히려 ‘내용→목표’가 아니라, ‘목표→내용’이 더 타당한 구도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단원 학습 목표의 초점이 운율이든, 이미지가든 또는 형식이든 관계없이 그 목표 지점을 먼저 학습한 뒤, 내용에 해당되는 정서를 파악하는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문학 단원에서만이 아니라 읽기 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설명문의 짜임에 대한 이해를 겨냥하는 단원이라면, 짜임을 파악한 뒤에 내용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구도가 타당하다. 설명문 읽기에서 짜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그 짜임 자체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형식적 가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점 교재론적 쟁점이 되어 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교재 편찬 작업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6) 시에서 ‘객관적 상관물’ 개념이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실체인 정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고, 비유가 중요한 이유도 결국 정서의 상태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구상화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자료>

- 강황구 외, 문학(상)·(하), 상문연구사, 2003.
 구인환 외, 문학(상)·(하), 교학사, 2003.
 김병국 외, 문학(상)·(하), 케이스, 2003.
 김윤식 외, 문학(상)·(하), 디딤돌, 2003.
 김창원 외, 문학(상)·(하), 민중서림, 2003.
 박경신 외, 문학(상)·(하), 금성출판사, 2003.
 우한용 외, 문학(상)·(하), 두산, 2003.
 조남현 외, 문학(상)·(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한계전 외, 문학(상)·(하), 블랙박스, 2003.
 한철우 외, 문학(상)·(하), 문원각, 2003.
 홍신선 외, 문학(상)·(하), 천재교육, 2003.
 권영민, 문학(상)·(하), 지학사, 2004.
 김상태 외, 문학(상)·(하), 태성, 2004.
 김대행 외, 문학(상)·(하), 교학사, 2004.
 박갑수 외, 문학(상)·(하), 지학사, 2004.
 박호영 외, 문학(상)·(하), 형설출판사, 2004.
 오세영 외, 문학(상)·(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최 웅 외, 문학(상)·(하), 청문각, 2004.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1997.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 2001.

<논저>

- 고정희, 「정서 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 - 고문헌에 나타난 ‘정서’ 개념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김대행, 정서의 본질과 구조,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86.

-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출판부, 2008.
- 김성룡, 『정서와 문학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 김용기, <온달전>의 인물 서사와 정서에 대한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 김준오, 『시론』(제3판), 삼지원, 1982.
- 서유경, 『<사씨남정기>의 정서 읽기 교육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 서유경, <숙향전>의 정서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 신재홍, <유충렬전>의 감성과 가족주의,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 양주동, 『麗謠箋注』(증보판), 을유문화사, 1985.
- 정충권,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분노와 설움』, 『고전문학과 교육』 2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 조윤제, 『국문학개설』, 탐구당, 1984.
- 조하연, 『감상(鑑賞)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小考)』, 『문학교육학』 1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 조하연, 『문학교육의 고려 속요 수용 양상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138, 한국어교육학회, 2012.
- 황혜진, <구운몽>의 정서 형성 방식에 대한 교육적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 N. N. Spivey, 신헌재 외 역, 『구성주의와 읽기·쓰기』, 2004, 박이정.

논문투고일자: 2012.6.30/심사완료일자: 2012.7.27/게재확정일자: 2012.7.31

Abstract

The Teaching-learning Activity about Emotion in the Textbooks of High School Literature

Ryu, Su-yeo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into the teaching-learning activity about emotion in the literature textbook and to establish the position of emotion in lyric poem. In advance, I will suggest an issue about the relation between goal of unit and teaching-learning activity.

The emotion-related teaching-learning activity is involved in almost every elements of lyric poem for instance poetic material, theme, background, situation, will, stance, attitude, desire etc. It is related to mood and tone too. So the emotion of poetic speaker's is used as the clue to interpretation or appreciation. And the word referring to certain emotion tend to be concealed at instruction sentence. It would be result from the consideration of implication of poetic diction.

The emotion-related teaching-learning activity is disposed almost every unit regardless of the goal of unit. It means that the poetic speaker's emotion is intrinsic element of lyric poem, and it is essential step in teaching-learning process. It is disposed to mediated intended curriculum at nation level and deployed curriculum at classroom level.

It is a general convention that 'content learning' precede 'target learning' in the textbook, and the 'content learning' activity deal

with poetic speaker's emotion. But it would be a error under consideration of the status of emotion in lyric poem. Because every learning activities have to flow to understanding poetic speaker's emot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content learning' dealing with poetic speaker's emotion is preceded by 'target learning'.

Key words : Koryeo-sokyo, Emotion, Teaching-learning Activity, Teaching Material, Content Learning, Target Learning.

[부록] 문학사 단원에 수록된 고려속요의 정서 관련 학습 활동

작품	출판사	대단원/ 중단원	정서 관련 학습 활동
가시리	문원각	한국 문학의 흐름/ 고려 시대의 문학	# 이 작품에서 연상되는 장면을 그려 보고, 시적 자아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가시리	포넛	문학의 흐름과 문학의 양상/ 한 문학의 발달과 시가 문학의 다양화	# 이 작품의 3연과 4연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1) 시적 화자의 심리적 갈등과 그 해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2) 일기의 형식을 빌어 3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심리를 표현해 보자.
가시리	청문각	한국 문학의 흐름과 전통/ 고려 시대의 문학	# 보충-심화 (1) 이 작품들과*과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드러난 공통적인 정서를 말해보자. * <가시리>와 <송인>
가시리	민중서림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고려 후기~조선 전기의 문학	# '선호면 아니 올세라' 에 담긴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를 추측해 보자, # '위 중추가 대평성대'는 작품 전체에 흐르는 이별의 정한과는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가시리	블랙박스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중세 전기 문학의 흐름	# 이 노래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이 작품의 서정적 자아는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2) 어떤 심적 갈등을 겪고 있는가? (3)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도움말 : 시적 화자의 어조나 정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가시리	교학사(구)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중세 문학	# 이 노래에서 화자는 어떠한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 <정석가>, <아리랑>과 <가시리>를 이별에 대한 태도 면에서 비교해보자.
서경별곡	지학사(박)	한국문학의 흐름/고려시대의 문학	# 이 작품에는 순종, 인고와 같은 전통적인 여성들의 이미지와는 다른 현실적 생활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토론해 보자. # 보기(가시리)의 화자가 서경별곡의 화자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보고 두 화자의 대화를 만들어 보자.[도움말: 두 시가의 시적 화자가 임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파악해 본다.]
서경별곡	지학사(권)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한글 창제 이전의 문학	# 이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다음 작품(진달래꽃)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도움말 : 두 작품의 시적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

서경별곡	민중서림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고려 후기~조선 전기 문학	# 이 작품의 시적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 추정해 보자. (3) 시적 화자가 화풍이를 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시적 화자가 하소연하는 방식과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는가? (3) 떠나는 상대에게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가? # <가시리>와 이 작품을 비교하면서 다음 활동을 해 보자. (2) 이별을 맞이하는 태도에 있어서 두 작품의 시적 화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그 차이점에 근거하여 두 시적 화자의 성격을 추론해 보자.
청산별곡	청문각	한국 문학의 흐름과 전통/고려 시대의 문학	#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를 찾아보자. # 각 장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를 말해 보자. (1~8장 모두) # 다음은 김상용의 시 '담으로 창을 내겠소'이다.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지향점을 '청산별곡'의 시적 화자의 지향점과 비교해 설명해 보자.
청산별곡	문원각	한국문학의 흐름/ 고려 시대의 문학	# 제 2장의 '새'와 시적 자아 사이에는 어떤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해 보자. # 각 장의 중심 내용과 시적 자아의 심리 상태를 정리해 보자.(1~8장 모두)
청산별곡	형설	문학의 흐름/고려 시대의 문학	# 이 작품이 고려 가요 중 가장 뛰어난 문학성을 갖추었다고 평가 받는 이유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자. (2)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서
동동	금성	민족 문학의 흐름/민족 문학의 성장	# 작품을 읽어 보고,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면서 각 연의 내용이 매달의 세시 풍속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정리하여 보자.[연, 중심 제재, 세시 풍속, 내용과 표현으로 항목화됨]
동동	교학사(김)	한국 고전 문학의 흐름/구어와 문어의 이원화	# <동동>의 화자는 여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는지, 전체적인 분위기, 임의 상황, 소재로 쓰인 사물, 어조 등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자. # 이 노래를 고려라는 시대 상황에 연결시켜 수용하는 것과 인간 정서의 보편성에 연결시켜 수용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의견을 나누어 보자.
동동	지학사(권)	한국문학의 특질과 흐름/한글 창제 이전의 문학	# 이 작품을 현대어로 바꾸어 본 후, 서사부터 12월명까지 각 월별로 소재, 주제, 세시 풍속을 정리해 보자.

정석가	천재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중세 후기 문학	# 화자가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상의 특징을 지적해 보자.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식이 독자의 심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말해 보자. # <정석가>에는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서경별곡>에는 지금 이별의 상황에 처한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두 작품에는 “구스리” “그즈리잇가.” 라는 구절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 상황에 대처하는 화자의 심정을 이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고, 각각의 작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이 시는 임과의 이별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가 남성일 경우와 여성일 경우로 나누어 작품의 상황을 상상해 보고, 그 정서적 효과에 대해서도 말해 보자.
만전춘별사	태성	한국 문학의 흐름/고려 시대의 문학	# 제 2연에서 ‘봄밤에 아름답게 핀 복숭아꽃’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심정에 대해 생각해 보자.